

제21대 대통령선거

작은도서관 정책 제안

전국 작은도서관의 개수는 약 6,875개(2023년 기준)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형태인 대한민국의 작은도서관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도서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1. **도서관들의 실험실**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콘텐츠들이 작은도서관에서 이미 먼저 실험한 경우가 많다.
2. **아웃리치 서비스와 독자개발**에서도 지역을 거점으로 소외되거나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서관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해왔다.
3. **미시(微視)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좋은 장서의 수집과 서비스 제공은 좋은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사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이다. 작은도서관은 초기부터 커뮤니티 도서관을 지향하고 활발히 지역 활동가를 양성해 왔다.
4. **교통약자의 유일한 도서관**이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노인이 도보로, 유아차나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생활권에 있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작은도서관 정책 제안서

▶ 1. 독서문화 및 도서관 예산의 정상화를 요구한다

독서문화와 도서관 예산의 삭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는 국민이 사고하고 토론하며 성숙한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훼손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문화 민주주의의 퇴보를 초래한다. **독서문화와 도서관 예산**을 정상화함으로써, 국민이 지적·문화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2. 작은도서관 활동가의 전문성 인정 및 지원을 요구한다

정부는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순회사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단기 채용되는 사서가 여러 관을 순회하는 방식은 각 작은도서관의 특성과 운영 철학을 반영하지 못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 전국 6,870여 개의 작은도서관은 수많은 자원활동가들의 헌신으로 운영돼 왔으며, 이들은 K-문화의 뿌리를 형성한 주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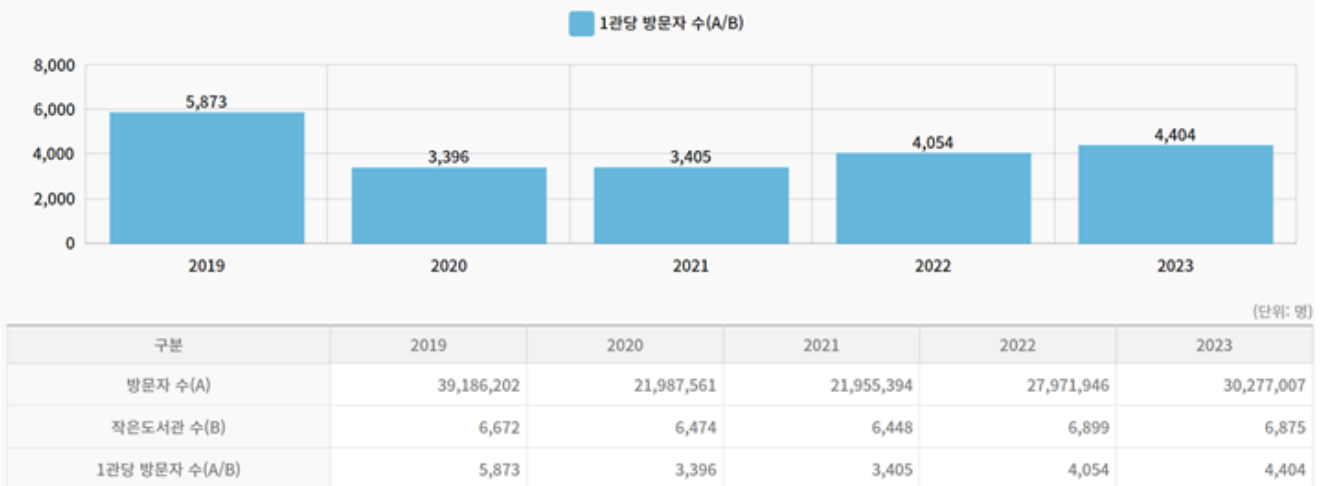
이들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 3. 사회적 고립과 고령사회 문제를 완화하는 공동체 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을 육성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중장년층과 고령자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상호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이다. 경험과 지식을 나눌 기회가 적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이들이 작은도서관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고, 역할을 갖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1관당 방문자 수

1관당 방문자 수는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2023년 기준 4,404명임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1관당 방문자 수는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 중이며, 2023년에는 관당 4,404명에 달했다. 1관당 대출도서 수 역시 같은 기간 2,084권에서 3,560권으로 증가하여,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책 대여 기능을 넘어 **지역 주민의 일상 속 문화접점이자 소통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능은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정신건강 문제 등 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범죄 및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노년기의 생애설계와 개인성장을 돕는 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은 의미 있는 공공 인프라다. 작은도서관의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지역복지와 문화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 육성**해야 한다.

▶ 4.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를 요구한다

작은도서관은 정부로부터 공공성을 부여받은 문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장서, 인력, 예산지원이 부족하다.

특히,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예고 없이 폐관되거나 운영 방식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운영 환경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은 물론, 운영자에게도 큰 혼란과 좌절을 초래하며, 공공서비스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성을 부여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과 예산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전국의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의 운영 지원 및 컨설팅,
협력과 교류를 목적으로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 연구와 더불어 어린이 책 연구,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연구, 작은도서관 기본장서 연구,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도서관 수탁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책 문화,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가길 8-7 2층

전화번호: 02)388-5933

메일: kidlib@smalllib.org

홈페이지: www.smalllib.org